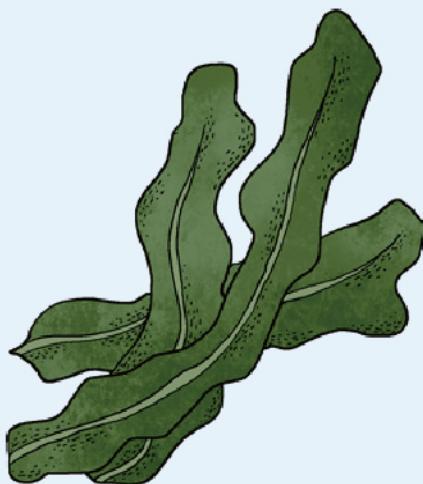




## 시골 할머니의 돈 500원!



1980년 12월말, 추운 겨울이었다.

나는 우연히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의 부탁을 받고 집을 찾아주고 그 대가로 500원을 받았다. 시골 할머니의 돈 500원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 일로 나는 다시는 금품을 받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일은 지금까지 나를 청렴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 그날 저녁 그 할머니의 눈물을 보았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다.

1980년 추운겨울 내가 공직에 들어와서 처음 근무지인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에서 있었던 일이다. 총각인 나는 마땅한 거처가 없어서 동사무소 당직실에서 먹고 자고 하였다. 동사무소 당직실은 오래된 흑백 TV와 삐거덕 거리는 침대, 그리고 검은색의 전화기가 있었으며, 세면장에서는 온수가 나와서 생활하기에는 불편함이 없는 곳이었다. 그래서 동사무소 당직실은 나의 집이며, 숙소이며 근무지였다.

그 날도 찬바람이 너무나 세차게 불어서 밤 10시쯤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당직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밖에서 바람소리인지, 아님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인지 구분이 안가는 “덜컹 덜컹”하는 소리가 한두 번 났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고 TV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렸을까 계속해서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래서

나는 귀찮다는 듯 중얼거리면서 현관문 쪽으로 나갔다. 그때 어두컴컴한 현관에 어느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이고 양손에는 보따리를 들고 서 계시는 것이었다.

문을 열고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늦은 밤에 어떻게 오셨어요?” 할머니는 손을 호호 불면서 짐을 바닥에 내려놓고 말하였다. “아저씨 우리 딸집을 찾는데 어둡고 컴컴해서 집을 못 찾겠습니다, 꼭 좀 가르쳐 주이소…….” 하는 것이었다. “어느 집을 말하는 것이어요?”하고 물자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편지봉투를 꺼내면서 나를 보고 읽어 보라고 하였다. 본인은 글을 모른다면서…….

편지봉투에 기재된 주소는 동사무소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마을이었다. 할머니께 손짓 발짓을 해가면서 비교적 상세하게 집의 위치를 설명해 드렸다. 그리고 난 후 혼자서 찾아 가시라고 하였다. 그러자 할머니는 근심어린 눈빛으로 나를 보더니 어쩔 수 없이 돌아서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참 후까지 소식이 없었다, 나는 할머니가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위치라서 지금쯤 딸집에 도착했으리라 생각하면서 동사무소 전체 소등을 하고 당직실에서 잠을 청하였다.

막 잠이 들었을까 꿈속에서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해서 났다. 나는 혹시나 싶어 이불 속을 기어 나와 플래시를 들고 현관문 쪽을 비췄다. 그러자 그곳에는 조금 전 그 할머니가 똑같이 머리에는 짐을 이고 손에는 보따리를 들고 서 계시는 것이었다. 마치 귀신과 같이…….

“할머니 왜 또 오셨어요, 딸집을 못 찾았어요?”하자 할머니는 “도저히 못 찾고 지금까지 헤매다가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왔어요. 아저씨가 좀 찾아주이소. 지금 시간이 늦어서 안 되면 이곳에서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만 있게 도와 주이소.”하는 것이었다. 나는 난감하였다. 두 가지다 어려운 제안이다. 그때 시계가 자정을 넘어 0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할머니 이 앞에 여관이 있으니 그 곳에 가서 주무시고 내일 찾아보세요.”

“안됩니다. 오늘 저녁 꼭 가야 합니다. 우리 딸이 오늘 아기를 낳았는데 미역국을 끓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관비도 비싸고….”

“조금 전 할머니가 동사무소에 내일 아침까지 있게 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깐 여관으로 가세요.”

“그건 하도 급해서 해본 소리이고 오늘 저녁 가야합니다. 좀 도와 주이소.”

그 후, 한참을 생각하더니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서 나에게 주는 것이었다. 그것은 500원 권 지폐였다.

“할머니 이것을 왜 저한테 주는데요.”하고 퉁명스럽게 이야기 하니,

“그 돈으로 내일 짜장면 사먹고 이 늙은이 한 번만 도와 주이소.”

그 때 할머니의 눈물을 보았다. 정말 딱한 것일까? 아님 돈이 아까워서 그럴까? 그것도 아니면 추워서였을까? 순간 많은 생각을 해보았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내가 직접 집을 찾아드리는 것이었다.

“할머니 갑시다. 내가 집을 찾아 드릴 테니.”하면서 500원 권 지폐를 슬쩍 집어넣었다. 나의 호주머니 속으로… 그 것은 일생일대의 실수요, 수치임에 분명하다. 정말 창피스러운 사건이다.

그리고 동사무소 현관문을 자물통으로 걸어 잠그고 할머니의 보따리 하나를 받아들고 찬바람을 맞으며 앞장섰다. 추운 겨울 12월 말의 자정이 넘은 시간은 정말 삭막하고 추웠다. 이 추운 겨울에 밤늦도록 4시간 정도를 거리에서 헤매고 다닌 할머니를 생각하니 안타까웠다. 시골에 계시는 늙은 어머니가 생각났다. 오늘은 유독 추운 밤이다.

약 30분을 걸어서 마을의 좁은 골목에 있는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조그만 집의 대문을 들어섰다. 그러나 집은 불빛하나 없이 컴컴하고 인기척이 없었다. 여러 번 불렀으나 대답은 없고 해서 되돌아오려고 하는 순간, 집 뒤쪽에서 간난아이 울음소리가 들여왔다.

오늘 태어난 아기 울음 소리였다. 사람 한 명 정도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따라 뒤로 돌아가니 쪽방에서 희미한 백열등 불빛이 새어 나왔다.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여자 한 분이 어린아이를 안고 초췌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할머니는 봇짐을 밖에다 내려놓고 달려가더니 자기 딸인 산모를 잡고 엉엉 우는 것이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 밤새 찾아 다녀서 춥고 배고프고, 빨리 달려오지 못해 안타까운 부모의 마음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까, 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두 사람은 계속 울기만 했다. 그래서 돌아갈까? 조금 더 있다가 할머니에게 인사하고 갈까? 생각하고 있던 중 약 5분쯤 지나서 울음을 멈추고 할머니께서 하시는 첫 마디가 “오늘 못 찾을 줄 알았는데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착한 아저씨가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왔다.” 정말 흐뭇하였다. 왜 진작 나서지 못했을까 생각하면서 되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추가로 하는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평생 동안 나의 뇌리에서 떠날질 않고 있다.

“오늘 오면서 미역 살려고 500원을 가져 왔는데 그만 저 아저씨 줬다 아이가, 그래서 미역 못 샀다. 그렇지만 시골에서 가져온 국거리가 있으니 그것으로 국을 끓일 테니 미역국이라 생각하고 먹어라.”

나는 망치로 머리를 짱 맞는 기분이 들었다. 산모에게 끓여줄 미역 살 돈을 내가 받다니… 그러나 돌려줄 용기가 나질 않았다. 분위기상 방에 들어가서 돈을 줄 수도 없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돈을 돌려 드려도 받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일 날이 밝으면 다시 와서 돌려주리라 마음먹고 동사무소로 돌아왔다. 다음날, 또 그 다음날도 산모 집을 찾지 못했다. 그렇지만 항상 500원 권 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빨리 돌려 드려야지하고 생각했다.

3일후 내가 다시 찾아간 산모의 방은 잠겨 있었다. 주인을 찾아 물어보니 “할머니가 산모를 데리고 시골로 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죄책감에 온

몸에 힘이 빠졌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받은 돈 500원은 끝내 돌려주지 못했다, 지금까지도, 그 소중한 산모의 미역국 값을….

그 이후 공직생활 동안 항상 그 돈 500원을 떠올리면서 다시는 금품을 받지 않겠다고 다짐과 다짐을 하고 청렴을 기본 정신으로 삼고 생활하고 있다. 내가 시골 할머니로부터 받은 사례금 500원이 할머니와 산모의 눈물이 되었고 그 눈물이 나의 공직 생활에 있어서 평생의 청렴정신으로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지금쯤 그 할머니는 돌아가셨겠지, 그때 그 산모는 어디에서 살고 계시는지….

청렴 韓 세상